

가정과 교사의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

전미경* · 김성희**

동국대학교(서울 캠퍼스) 가정교육과* ·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Homes Economics Teachers' Percep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Multicultural Education

Jun, Mi-Kyung* · Kim, Sung-Hee**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Seoul)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out efficient multicultural education plans by investigating Home Economics teachers' percep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multicultural education. Thus, a survey was carried out to collect data mainly from home economics teachers who is working for middle schools .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re were more teachers who had some experience of contacting with multicultural families than those who didn't have, but it was not a big difference. Also,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not many teachers who took multicultural education-related classes for their studying at college or had multicultural education-related teachers' training for their working as a teacher. Secondly, it was found that their respect for multi-races, recognition of multi-cultures, belief in multi-cultures and acceptance attitude toward multicultural knowledge were very positive. Thirdly, it was found that most teachers had consideration -centered viewpoints most of all. On the other hand, assimilation-based viewpoints were the least among teachers. Fourthly, teachers believe that multicultural society centered contents, which is a society where people get along with each other, should be dealt in class while executing education for multicultural families. Lastly, in regard to methods of executing education for multicultural families, it was found that they showed the strongest opinion that it should be executed all over the domain of every school subject as integrated education.

1) 본 논문은 2010년도 석사학위논문 의 일부임.

2) 교신처: Jun, Mi-Kyung, Dongguk University,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26, Pil-dong 3-ga, Chung-gu, Seoul, 100-715, Korea
Tel: 02-2260-3889, Fax: 02-2265-1170, E-mail: preba@chol.com

Key words: 다문화교육(Multicultural Education), 다문화가족(Multicultural Families), 가정과 교사(Home Economics Teachers), 가정교육(Home Economics Education)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인구변동은 매우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인구변동의 가장 큰 핵심은 출산율의 저하이다. 우리의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가임기간 즉 15세~49세동안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960년 6.0명이었던 것이 1983년 인구대체수준인 2.1명 이하인 2.08명으로 떨어졌다. 이러한 합계출산율은 이후 더욱 가속도가 붙어 2005년에는 1.08명으로 하락하였다. 이후 2009년 1.15명으로 조금 상승하였지만, 지금의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 합계출산율인 2.54명은 물론이고 OECD국가의 평균 합계출산율인 1.64명 보다 훨씬 낮은 상황이다(인구보건복지협회, 2009). 따라서 지금과 같은 인구변동이 이어진다면 우리나라 총인구와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이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782만 명, 2030년 1,190만 명, 2050년 1,579만 명이 될 전망이다(파이낸셜뉴스, 2006년 6월 21일).

그러나 이러한 인구전망은 최근 우리나라로 유입하는 외국인의 급증으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외국으로 나가는 국내인이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보다 많았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에 유입된 외국인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19년으로 예상되었던 인구감소 시기가 10년 가까이 늦춰질 전망이다. 이는 인구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세 요소인 출산율, 사망률, 국제이동 수 중 국제이동 수가 크게 증가하여 통계청의 예상과 달라졌기 때문이다(포커스신문사, 2010년 4월 6일).

특히 결혼이민자의 증가는 최근 10여 년간 매우 두드러진 현상이다. 2008년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건수는 36,204건으로 전체 결혼 신고 건수의 11.1%를 차지하고 있다. 또 국제결혼 가정 자녀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15,804명(85.1%), 중학교 2,205명(11.8%), 고등학교 760명(3.1%)으로

초등학교 재학생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 상당히 많은 미취학 아동이 곧 초등학교에 취학할 예정임을 고려할 때, 향후 초·중등 학교에서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비중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동은 우리나라에 ‘다문화사회’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즉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한국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1997년 ‘국적법’ 개정으로 가족 성원의 국적 다양성이 인정되었으며, 법무부에서는 2007년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또 2008년 3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여 다문화가족들이 우리나라에서 일반국민들과 함께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인 제도를 마련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2008년 9월 ‘결혼이민자지원센터’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10년 3월 현재 전국적으로 171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개설되어 다문화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다문화가족의 적응을 위해 법적·제도적 준비를 마련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전개하고 있다. 2006년에는 ‘다문화가정자녀 교육지원 대책’을 마련하였고, 2007년에는 ‘다문화가정자녀 교육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적 준비와 함께,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 학생들이 경험하는 고통과 차별을 감소시키고 모든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적 기회를 갖도록 하는 다문화교육의 체계적이고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2007)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을 범 교과가 접근해야 할 주제로 강조하였다. 또 기술·가정교과의 가정영역 역시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다문화이해 교육”과 “국제 이해 교육”을 강조하였다. 즉 가정과는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교육’, ‘지속 가능한 삶과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의·식·주·소비생활’, ‘전통문화 이해 교육’, ‘진로 교육’과 함께 ‘다문화 이해 교육 및 국제 이해 교육’을 기본교육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교육과정 속에서는 실행 주체로서 학생들의 교육 경험을 가장 직접적으로 매개하고 조정하는 가정과 교사들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확하고 편견 없는 정보제공은 다문화교육의 핵심이다.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은 학생들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다문화된 가족 형태를 이해하고, 나아가 다문화사회에 잘 적응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특히 다문화교육 실행의 초기 단계에서는 다문화교육을 위한 학습 자료, 교수·학습 방법, 학교 환경 등의 제반 여건이 미비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과 교사의 역할과 인식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교사의 인식은 교육의 실행과 교실의 수업형태, 그리고 학생들의 성취 목적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교사가 자신과 다른 집단이나 문화 등에 대해 어떤 이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작업은 다문화교육의 토대가 될 것이다(모경환·황혜원, 2007).

한편, '다문화'에 대한 연구는 2000년 이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다문화'에 대한 인구변동이 실감되기 시작하였고, 20세기 들어 우리사회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으로 발생하는 제반 문제들을 대비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음을 반증한다. 또 다문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다문화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그 속도를 더해가고 있다. 세계화와 다양한 민족들의 공존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방향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교육계에서 다문화에 대한 교육의 형태는 '다문화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실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식의 문제와 실행·실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이진아, 2008).

국내 다문화교육관련 연구를 보면, 다문화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거나(박성혁, 2009; 서범석, 2009; 이민경, 2008), 유아교사와 예비 유아교사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 비교(김현주·김경숙, 2008; 이춘자, 2008), 다문화교육의 개념, 실천 형태 및 실천의 어려움(박미경·이승연, 2008),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생활실태 조사(전경숙, 2007), 초·중등교사들의 다문화와 다문화교육 인식에 대한 연구(모경환·황혜원, 2007; 박남수, 2007; 정진홍, 2008), 다문화교육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에 관한 연구(김순옥, 2009) 등이 있다.

이처럼 선행연구는 정책을 제시하거나 생활실태를 조사하기도 하지만, 유아교사와 초등교사의 인식 및 실태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중등교사들의 다문화 인식에 관한 연구도 있지만(모경환·황혜원, 2007; 정진홍, 2008), 이는 국어·사회과 교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등학교 가정과 교사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교육을 위해 어떠한 요구를 갖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이는 가정과에서의 효율적인 다문화교육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이 연구는 가정과 교사의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교육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가정과 교사의 다문화가족 접촉 경험과 다문화교육 관련 수업 및 교사연수 유무의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가정과 교사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가정과 교사의 다문화교육 목표에 대한 관점은 어떠한가?

넷째, 가정과에서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과 목표는 어떠한가?

다섯째, 가정과 교사의 다문화교육 실시에 대한 요구사항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사회에서의 다문화가족 실태 및 복지 현황

지금 세계는 이민, 노동, 결혼, 유학, 방문 등 다양한 목적으로 국가 간 인구이동이 일상화되고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조성남, 2009). 우리나라도 외국인노동자와 결혼이민자, 새터민이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다민족화와 다문화 현상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2009)의 '2007~2009년 지역별·출신국별 다문화가정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가정(누적기준)은 2007년 12만 6955명, 2008년

14만 4385명, 2009년(1~9월 기준) 16만 7090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가운데 중국 출신은 2007년 2만 9627명(23.3%), 2008년 3만 3667명(23.3%), 2009년 4만 8698명(29.1%)으로 늘었고, 베트남 출신은 같은 기간 1만 6219명(12.8%), 2만 1150명(14.6%), 3만 779명(18.4%)으로 증가했다. 필리핀 출신 다문화가정도 7,044명(5.5%), 7,826명(5.4%), 9,799명(5.9%)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다문화가정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던 중국 조선족 동포는 2007년 5만 65명(39.4%)에서 2008년 5만 5789명(38.6%), 2009년 5만 3754명(32.2%)으로 감소했다.

이들 가족 중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매우 크다. 노동부에서 실시한 '2004년 노동력 수요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 산업에 걸쳐 약 18만 명의 인력이 부족하여 제조업과 영세산업의 인력부족이 특히 심하다. 이러한 인력 부족으로 90만 명 이상의 외국인노동자가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들은 그 규모가 크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의 부재를 메우기 위한 한시적인 노동력 수입으로 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부나 사회의 관심이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김현미, 2006). 또 1990년대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새터민 역시 한국사회의 다양화에 기여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정치·경제적 불안으로 북한주민의 북한이탈현상이 시작되어, 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유입은 2007년 1월 1만 명을 넘어섰다. 가족 전체가 함께 탈출하거나 남한에 먼저 온 가족과 재결합하는 성격의 입국이 점차 증가하면서 새터민 아동, 청소년, 노인 등 다양한 연령층의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대부분의 대상은 외국 이주민의 10%대에 불과한 결혼이민자에 국한되어 있다. 다시 말해 외국인노동자와 새터민 등을 위한 정책적 대응은 사실 소홀한 편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2006년 4월을 기준으로 크게 변화하였다. 다문화정책기조라는 측면에서 '국익 우선의 원칙'에서 '인권보장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였고, 정책적 관점에 있어서 '일회성 인력수급'에서 '더불어 사는 이웃'으로 변화하였다. 또, 한국사회의 지향이라는 측면에서 '단일민족 및 순혈주의'에서 '다문화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며, 외국인 처우에 있어

'통제와 관리'라는 면에서 '상호 이해와 존중'으로, 추진체계에 있어서는 '개별부처 추진체계'에서 여러 부처가 협조하는 '총괄 추진체계'로의 변화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정부 정책의 바람직한 지향점에 관한 것이지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것은 아니다(최현미 외, 2008).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9)은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에서 이주민과의 사회통합은 언어·정치·경제·사회·정체성·문화적 통합이 총체적·동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일상생활을 위한 언어교육과 더불어 이주민을 대상으로 취업을 위한 언어 교육도 병행돼야 하며 이주민의 취업경력과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본국의 학력과 경력·기술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보건복지부(2010)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내용을 보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교육, 가족교육·상담, 정보제공,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 다문화교육과 가정과 교육

1) 다문화교육의 개념과 필요성

다문화교육은 1970년대 중반에 등장한 폭넓고 광범위한 가치를 반영하는 다문화주의를 근간으로 하여, 사회에는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며, 모든 문화는 각기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전제한다(김홍운·김두정, 2008). 이러한 다문화교육은 학자들마다 그 정의에 있어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데, Banks(1997)는 다문화교육을 '다양한 인종, 민족, 문화 집단'에 속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동등한 학습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기관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의 이념이자, 교육 개혁 운동이며, 과정'이라고 하였다. Nieto(1992)는 다문화교육이 '모든 학생들을 위한 광범위한 학교 개혁의 과정'이며, '학교 및 사회에서 진행되는 인종 차별주의 및 다른 형태의 차별에 도전하고, 학생, 지역 사회 및 교사들이 대표하는 다원주의(민족, 인종, 언어, 종교, 경제, 성별 등)를 인정하고 수

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또 김선미·김영순(2008)은 '다문화사회에서 시민들이 스스로의 자아정립과 삶의 방식,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속해 있는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올바른 지식, 가치,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다문화교육의 정의는 학자 간에 차이가 있지만, 다문화교육에 대한 정의의 공통적인 견해는 사회 내에 존재하는 여러 문화집단의 다양성을 긍정하며, 이에 따라 모든 사회구성원이 동등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교육적 접근이라는 것이다. 즉 다문화교육의 목표는 다양한 인종, 민족, 계층, 문화 집단의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자질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Pang(2005)은 다문화교육의 목표를 신념과 실천에 따라 네 가지 관점으로 구분하였는데, 동화주의 관점, 인간관계 강조 관점, 사회적 행동 강조 관점, 배려 중심 관점이 그것이다(정진홍, 2008에서 재인용).

동화주의 관점의 다문화교육 목표는, 소수 집단 학생들이 주류 사회 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들의 모국어와 문화적 가치를 포기하고 주류 문화를 받아들이고 순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은 보편적인 진리이며, 사회적 준거를 그대로 가르치는 것을 다문화교육의 목표로 본다.

인간관계 강조 관점의 다문화교육 목표는, 사회적 조화, 통합, 관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모든 학생들은 서로 협력하고 경험을 제공하여 편견을 극복함으로써 서로 존중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주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수해야 할 필수적인 지식이 있다고 본다.

사회적 행동 강조 관점의 다문화교육 목표는, 학생들이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변화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로 인하여, 평등과 정의를 경험하고 모든 사람들과 문화를 공유함으로써 차별은 없어질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배려 중심 관점의 다문화교육 목표는 정의와 자유에 기반을 둔 다문화사회의 건설이다. 그로 인해, 학생들은 상호 존경하고 배려하는 분위기를 통하여 공정과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게 된다는 관점이다. 결론적으로, Pang(2005)은 동화주의

관점과 인간관계 강조 관점은 기존 질서를 강조하고 현상 유지시키는 것이라고 보았고, 사회적 행동 강조 관점과 배려 중심 관점이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교육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는 2006~2007년도에 걸쳐 다문화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법안들을 마련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6년도와 2007년에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그 실행을 독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범교과 주제의 하나로 '다문화교육'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문화저널21, 2009년 12월 31일). 그러나 이러한 다문화교육은 대부분 문화적 소수자인 다문화가정의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일반 학생들이 다양화 되어 가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더 이상 다문화교육을 유보할 수 없는 시급한 실정이다. 문화적 소수자와 일반 학생들 모두를 대상으로, 일회성 행사와 편편일률적인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전문가들과 이해당사자가 힘을 모아 다문화교육과정을 개발하는 현명한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

2) 가정교과에서의 다문화교육

2007 개정 교육과정은 국제이해교육을 적극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을 특정 교과가 아닌 모든 교과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로 선정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기술·가정 교과 역시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정영역의 내용 선정 기본 방향으로 '다문화이해교육'과 '국제이해교육'을 설정하였다. 가정교과에서 다문화교육이 특히 강조되는 단원은 8학년 대단원 '가족의 이해' 중 '변화하는 가족'과 9학년 '가정생활과 복지' 단원이다.

8학년 '변화하는 가족'은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의 변화에 대한 것으로, 달라진 가족의 의미, 가치관, 가족 형태, 가족구성원의 역할 변화 등을 알아보고 변화의 배경을 문화, 사회, 역사적 측면에서 검토하여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분석하고 조망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때, 단편적인 결과만이 아니라 개인, 가족, 사회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변화의 요인 및 과정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표 1〉 측정도구의 신뢰도

구분		Cronbach의 α	항목 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754	8
다문화교육의 목표	동화주의 관점	.785	2
	인간관계 관점	.632	2
	사회적 행동 관점	.704	2
	배려 중심 관점	.675	2

과정을 바탕으로 가족의 중요성을 깨닫고 바람직한 가족생활의 모습을 생각해보도록 해야 한다고 하면서, 독신가족, 한부모가족, 재혼가족과 함께 ‘다문화가정’의 건강한 가족생활 유지 전략에 대해 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9학년의 ‘가정생활과 복지’ 단원에서도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교육, 양성 평등 교육, 효도·경로·전통 윤리 교육과 함께 다문화교육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변화를 염두에 둘 때,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사회나 국가 사회의 통합이나 유대를 이룰 수 있는 가치관” 형성에 가정교과에서의 다문화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사들이 가정교과에서의 다문화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학생들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다원화된 가족 형태를 이해하고 나아가 다문화사회에 잘 적응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III. 연구방법

가정과 교사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교육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 이 연구는 설문조사의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설문지는 교사의 일반적 배경(11 문항), 다문화가족 접촉 및 교육 유무(3 문항),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8 문항), 다문화교육 목표에 대한 관점(8 문항), 가정교과에서의 다문화교육(4 문항), 다문화교육에 대한 요구(5 문항)로 구성되었다. 이 가운데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교

육에 대한 설문 문항은 이은주(2010)와 모경환·황혜원(2007)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설문 문항의 신뢰도는 <표 1>과 같다. 모든 문항에서 Cronbach α 값이 .6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각 문항 간 내적 일치도가 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가정과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화 연결을 통하여 설문지의 의의를 전달하고 협조를 부탁하였고, 설문에 응답한 교사에게 동료 교사를 소개 받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중등학교 사이트를 방문하여 협조를 구한 뒤 설문을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0년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로 총 110부를 수집하였다. 이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99부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수집된 자료는 SPSS(Versio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다문화가족 접촉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다문화교육을 위한 요구 사항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요인과 다문화교육을 실시할 때 목표 요인, 가정교과에서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 요인에 대한 각각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교육 목표, 가정교과에서 다문화교육의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교사들의 인구 통계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구 분		빈도(명)	백분율(%)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여자	93	93.9	최종학력	대학교 졸업	57	57.6
	남자	6	6.1		석사학위 취득	40	40.4
연령	20대	29	29.3		박사학위 취득	2	2.0
	30대	38	38.4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8	18.2
	40대	14	14.1		300만원 미만	8	8.1
	50대 이상	18	18.2		400만원 미만	14	14.1
미혼		40	40.4		500만원 미만	10	10.1
결혼 여부	기혼	59	59.6	500만원 이상	49	49.5	
	거주지역	서울	54	54.5	근무학교	중학교	72
인천		8	8.1	고등학교		27	27.3
경기도		37	37.4	근무경력	5년 미만	46	46.5
근무지역	서울	66	66.7		5~10년 미만	14	14.1
	인천	5	5.1		10~15년 미만	13	13.1
	경기도	28	28.3		15~20년 미만	8	8.1
자격증 취득경로	사범대학	74	74.8		20년 이상	18	18.2
	교육대학원	11	11.1	합 계	99	100.0	
	교직이수	14	14.1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가정과 교사의 다문화가족 접촉 및 다문화교육 경험

다문화가족 또는 그 자녀와 접촉한 경험 유무²⁾에 대해 살펴본 결과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접촉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53.5%로 나타났으며, ‘접촉한 경험이 있다’는 응

답이 46.5%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다문화가족 접촉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접촉 경험이 있다’는 응답과 근소한 차이였다.

또 재학시절 ‘다문화교육 수업을 수강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77.8%, ‘수업을 수강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22.2%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 양성기관인 사범대학의 다문화 관련 수업 개설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재학시절 다문화관련 수업을 통하여 지식을 습득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제공

〈표 3〉 다문화가족 접촉 경험·수강유무·연수 유무

구 분		빈도(명)
접촉 경험	있다	46(46.5)
	없다	53(53.5)
수강 유무	있다	22(22.2)
	없다	77(77.8)
연수 유무	있다	16(16.2)
	없다	83(83.8)
합 계		99(100.0)

2) 이 연구에서 다문화가족 접촉은 가정과 교사의 주위 또는 학교생활에서 다문화가족과 그 자녀와의 만남을 의미한다

〈표 4〉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구분	평균(SD)
한국에도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살고 있다.	3.93(.929)
나와 다른 인종·민족일지라도 존중해주어야 한다.	4.77(.512)
한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사람들을 한국인으로 인정해야 한다.	4.12(.836)
정부와 시민단체가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4.36(.735)
나는 인종과 민족이 다른 사람들 간의 결혼을 찬성한다.	3.67(.795)
나는 기회가 된다면 다문화가정 사람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싶다.	3.03(.775)
나는 신문·TV 등에서 다루는 다문화가정 관련 기사를 관심 있게 본다.	3.49(.919)
나는 다른 문화에 대해 수용 및 존중하려는 태도를 갖고 있다.	4.31(.547)
평균	3.96(.466)

되어야겠다.

한편, 다문화교육 관련 교사연수 유무를 알아보았다. '다문화교육 관련 교사연수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83.8%로 나타났으며, '교사연수를 받아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16.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사회로 접어든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며, 현직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 교육을 통한 관심과 연구로 학교 현장에서 깊이 있는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

2. 가정과 교사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의 평균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알아본 결과 3.96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나와 다른 인종·민족일지라도 존중해주어야 한다'가 4.7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교사들은 다인종의 존중, 다문화에 대한 신념, 다문화 지식 수용 태도, 다문화의 인정은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으나,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살고 있음을 인지하는 현실 인식은 강하지 않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친밀감과 관심, 그들과의 소통에서는 유보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또 나와 다른 인종·민족일지라도 존중해주어야 한다가 4.77점인 반면, 나는 기회가 된다

면 다문화가정 사람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싶다가 3.03점을 나타내며 다인종의 존중과 다문화가족과의 소통에 대한 많은 인식 차이를 보였다.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가정과 교사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결과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연령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은 20대 4.10점, 50대 이상 3.93점, 30대~40대 3.88점의 순으로 나타나며, 20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근무지역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은 경인지역 4.00점, 서울지역 3.93점의 순으로, 경인지역이 높은 점수를 보였다. 교원 자격증 취득경로에 따른 다문화가족 인식을 살펴보면, 비사범대 3.97점, 사범대 3.95점의 순이었다. 다문화가족 접촉 경험별로는 경험이 있는 교사가 3.93점, 없는 교사가 3.98점으로 다문화가족 접촉 경험이 없는 교사의 점수가 더 높았다. 다문화교육 수업 수강 유무는 수업을 수강한 교사가 3.93점, 수업을 수강하지 않은 교사가 3.97점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교육 연수 경험이 있는 교사가 3.91점, 연수 경험이 없는 교사가 3.96점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다문화교육 수업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교사와, 다문화교육 연수 경험이 있는 교사의 점수가 경험이 없는 교사의 점수보다 낮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5>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구분(N)	평균(SD)	tF
연령	20대(29)	4.10(.498)
	30대~40대(52)	3.88(.466)
	50대 이상(18)	3.93(.376)
근무지역	서울지역(66)	3.93(.426)
	경인지역(33)	4.00(.542)
교원 자격증 취득경로	사범대(74)	3.95(.492)
	비사범대(25)	3.97(.387)
다문화가족 접촉 경험	있다(46)	3.93(.405)
	없다(53)	3.98(.516)
다문화교육 수업 수강	있다(22)	3.93(.414)
	없다(77)	3.97(.482)
다문화교육 연수 경험	있다(16)	3.91(.418)
	없다(83)	3.96(.477)
합계(99)	3.96(.466)	

3. 가정과 교사의 다문화교육 목표에 대한 관점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다문화교육 목표에 대한 관점

1) 다문화교육 목표에 대한 전반적인 관점

다문화교육 목표에 대한 관점을 살펴본 결과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려 중심의 관점이 평균 4.4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가정교사들은 다문화교육의 목표로서 배려 중심의 관점을 가장 강하게 소유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가정교사들은 다문화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강조하고, 학생들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갖도록 하는 것을 다문화교육의 목표로 중요하게 생각했다. 반면, 동화주의 관점이 가정과 교사들에게 가장 약하게 나타났으며, 인간관계 강조 관점과 사회적 행동 강조 관점은 비슷한 점수를 보였다. 국어·사회과 교사를 중심으로 한 모경환·황혜원(2007)의 연구에서도 다문화교육 목표에 대한 관점은 배려 중심 관점, 인간관계 강조 관점, 사회적 행동 강조 관점, 동화주의 관점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연령에 따라 다문화교육 목표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20대와 30대~40대는 각각 4.34점, 4.41점으로 배려 중심 관점이 높게 나타났으며, 50대 이상은 4.50점으로 인간관계 강조 관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동화주의 관점이 높게 나타나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근무지역에 따라서 살펴보면 서울지역, 경인지역 각각 4.40점, 4.39점으로 배려 중심 관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인간관계 강조 관점에서 서울지역 4.34점, 경인지역 4.09점을 나타내며 서울지역 교사들이 인간관계 강조 관점에 더 강하게 동의하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상과 같이 가정과 교사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다문화교육 목표에 대한 관점 결과 연령에 따라서는 동화주의 관점, 근무지역 별로는 인간관계 강조 관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6> 다문화교육 목표에 대한 관점

구분	평균(SD)	구분	평균(SD)
동화주의 관점	3.93(.708)	사회적 행동 관점	4.24(.564)
인간관계 관점	4.26(.603)	배려 중심 관점	4.40(.596)

〈표 7〉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다문화교육 목표에 대한 관점

구분(N)	동화주의	인간관계	사회적 행동	배려 중심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연령	20대(29)	3.79(.605)a	4.24(.414)	4.15(.445)	4.34(.501)
	30대~40대(52)	3.84(.757)a	4.19(.728)	4.24(.652)	4.41(.669)
	50대 이상(18)	4.44(.481)b	4.50(.383)	4.41(.428)	4.47(.527)
	F	6.254**	1.793	1.207	.263
근무지역	서울지역(65)	4.03(.646)	4.34(.533)	4.32(.529)	4.40(.567)
	경인지역(33)	3.74(.791)	4.09(.701)	4.09(.605)	4.39(.658)
	t	1.986	2.034*	1.982	.119
교원 자격증 취득경로	사범대(74)	3.87(.748)	4.21(.652)	4.22(.608)	4.36(.615)
	비사범대(25)	4.12(.545)	4.40(.408)	4.32(.405)	4.52(.529)
	t	-1.732	-1.650	-.902	-1.126
다문화가족 접촉 경험	있다(46)	3.97(.690)	4.30(.636)	4.26(.593)	4.42(.605)
	없다(53)	3.90(.727)	4.22(.576)	4.23(.542)	4.38(.593)
	t	.507	.639	.219	.308
다문화교육 수업 수강	있다(22)	3.90(.548)	4.34(.520)	4.27(.528)	4.52(.522)
	없다(77)	3.94(.750)	4.24(.626)	4.24(.577)	4.37(.614)
	t	-.269	.688	.237	1.059
다문화교육 연수 경험	있다(16)	4.06(.727)	4.40(.611)	4.43(.543)	4.56(.573)
	없다(83)	3.91(.706)	4.23(.601)	4.21(.563)	4.37(.599)
	t	.758	1.040	1.480	1.163

*p<.05, **p<.01, a,b: Duncan's Multiple Test

4. 가정교과에서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과 목표

1) 가정교과의 다문화교육 중점 내용

다음으로 범 교과가 아닌 가정교과에서 다문화교육의 중점 내용에 대한 가정교사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표 8>과 같다. 더불어 사는 다문화사회를 다루는 내용이 5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문화가정 친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내용

이 34.7%, 다른 나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10.2%, 모든 민족의 평등 가치에 대한 내용이 3.1%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교과의 다문화교육 내용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은 협력과 관계되는 더불어 사는 다문화사회를 다루는 내용, 다양성을 포함하는 다문화가정 친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내용, 다른 나라 문화를 이해하는 내용, 모든 민족의 평등 가치를 다루는 내용 순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 및 협동 능력을 증진시키고, 다양한 개인과 집단의 존재를 인정하며, 각 문화 간 긍정적인 태

〈표 8〉 가정교과의 다문화교육 중점 내용

구분	빈도(%)
다문화가정 친구 존중	34(34.7)
더불어 사는 다문화사회	51(52.0)
모든 민족의 평등가치	3(3.1)
다른 나라 문화 이해	10(10.2)
합 계	98(100.0)

〈표 9〉 가정교과의 다문화교육 지향 목표

구 분	평균(SD)	구 분	평균(SD)
동화주의 관점	3.75(.941)	사회적 행동 관점	3.28(.969)
인간관계 관점	4.43(.539)	배려 중심 관점	4.44(.625)

도를 발달시키는 동시에 인간 평등의 가치를 함양 할 수 있는 내용의 수업이 구성 되어야겠다. 이는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 한 이은주(2010)의 다문화교육 내용을 교과서에 삽입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에 대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2) 가정교과의 다문화교육 지향 목표

가정교과에서 다문화교육을 실시할 때 지향해야 할 목표에 대해 살펴보면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려 중심 관점이 4.4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인간관계 강조 관점, 동화주의 관점, 사회적 행동 강조 관점 순으로 나타

났다.

이는 범 교과에서의 다문화교육 지향 목표와 조금 차이를 보인다. 배려 주의, 인간관계 강조 관점, 사회적 행동 강조 관점, 동화주의 순으로 나타난 <표 6>의 결과와 다르다. 일반적인 다문화교육 목표에 대한 관점에서 인간관계 중심 관점과 사회적 행동 관점이 비슷한 점수를 보인 반면, 가정교과에서의 다문화교육 목표에 대한 관점에서는 사회적 행동 강조 관점이 동화주의 관점보다도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가정과 교사들은 가정교과에서 인간관계 강조 관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정교과에서의 지향 목표를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먼저 연령의 경우, 20대 4.34

〈표 10〉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정교과에서의 지향 목표

구분(N)	동화주의	인간관계	사회적 행동	배려중심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연령	20대(29)	3.79(.774)a	4.34(.484)	3.28(.841)	4.21(.675)a
	30대~40대(52)	3.52(.980)a	4.44(.574)	3.35(.968)	4.58(.605)b
	50대 이상(18)	4.33(.840)b	4.61(.502)	3.11(1.183)	4.39(.502)ab
	F	5.525**	1.368	.389	3.486*
근무지역	서울지역(66)	3.88(.869)	4.42(.556)	3.18(.975)	4.38(.674)
	경인지역(33)	3.48(1.034)	4.48(.508)	3.48(.939)	4.55(.506)
	t	1.994*	-.526	-1.475	-1.378
교원 자격증 취득경로	사범대(74)	3.65(.957)	4.38(.542)	3.32(.952)	4.41(.660)
	비사범대(25)	4.04(.841)	4.64(.490)	3.16(1.028)	4.52(.510)
	t	-1.820	-2.137*	.731	-.791
다문화가족 접촉 경험	있다(46)	3.74(.880)	4.48(.586)	3.20(.980)	4.37(.645)
	없다(53)	3.75(.998)	4.42(.497)	3.36(.963)	4.49(.608)
	t	-.082	.580	-.832	-.960
다문화교육 수업 수강	있다(22)	3.82(.853)	4.45(.596)	2.95(.722)	4.14(.640)
	없다(77)	3.73(.968)	4.44(.525)	3.38(1.014)	4.52(.598)
	t	.398	.099	-2.193*	-2.608*
다문화교육 연수 경험	있다(16)	3.44(.892)	4.31(.479)	3.63(1.204)	4.56(.629)
	없다(83)	3.81(.943)	4.47(.549)	3.22(.911)	4.41(.625)
	t	-1.448	-1.175	1.287	.894

*p<.05, **p<.01, a, b : Duncan's Multiple Test

점, 50대 이상 4.61점으로 인간관계 강조 관점에 높은 점수가 나타났고, 30대~40대는 4.58점으로 배려 중심 관점에 가장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동화주의 관점은 50대 이상은 4.33점, 20대는 3.79점 30~40대는 3.52점 순으로 50대 이상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배려 중심 관점은 30~40대 4.58점, 50대 이상 4.39점, 20대 4.21점으로 30~40대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며 역시 연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근무지역에 따라서 살펴보면 서울지역은 4.42점으로 인간관계 강조 관점, 경인지역은 4.55점의 배려 중심 관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동화주의 관점에서 서울지역이 3.88점으로 경인지역 3.48점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교원 자격증 취득경로별로는 사범대 4.41점으로 배려 중심 관점, 비사범대 4.64점으로 인간관계 강조 관점에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인간관계 강조 관점에서 나타났다. 다문화교육 수업 수강 유무에 따라서 살펴보면 수업을 수강한 교사는 4.45점으로 인간관계 강조 관점, 수업을 수강하지 않은 교사 4.52점으로 배려 중심 관점에 가장 강하게 동의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적 행동 강조 관점과 배려 중심 관점에서 다문화 수업을 수강한 적이 없는 교사가 더 높은 점수를 보이며 통계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가정과 교사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

정교과에서의 지향 목표에 대한 결과는 연령, 근무지역, 교원 자격증 취득경로, 다문화수업 수강 유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5. 가정과 교사의 다문화교육을 위한 요구

가정과 교사의 다문화교육 실시를 위한 요구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다문화교육의 실시 방법, 실시 교과, 활용 자료와 다문화교육을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사항과 연수방법에 대해 조사하였다.

먼저, 다문화교육 실시 방법에 대한 결과 ‘모든 교과와 전 영역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한다’가 4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과에서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제시될 때 실시한다’, ‘주제 중심으로 특정 시기를 선택해서 실시한다’, ‘특정 교과에서 실시한다’의 순이다. 이처럼 가정과 교사들은 다문화교육의 실시 방법으로 모든 교과와 전 영역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교육이 모든 교과에서 통합적으로 실시되기 위하여 다양하고 효과적인 수업 방법의 개발과 보급이 이루어져야겠다.

다음으로 다문화교육이 특정 교과에서 실시된다면 어떤 교

〈표 11〉 다문화교육의 실시방법, 실시교과, 활용자료

		빈도(%)
실시 방법	모든 교과 통합적 실시	47(48.5)
	주제중심 특정시기 선택 실시	18(18.6)
	특정교과 실시	9(9.3)
	다문화 관련 내용 제시 때 실시	23(23.6)
실시 교과	기술가정과	68(68.7)
	국어과	2(2.0)
	도덕과	13(13.1)
	사회과	15(15.2)
	외국어과	1(1.0)
활용 자료	시각매체(책, 만화, 신문, 잡지, 교과서 등을 통한 교재)	15(15.6)
	실물 자료(외국 옷, 민속악기 등)	12(12.5)
	시청각 자료(CD, 비디오 자료 등)	62(64.6)
	인터넷 매체(인터넷을 통한 홈페이지 활용)	7(7.3)
	합 계	99(100.0)

(표 12) 다문화교육에서 선행되어야 할 사항과 연수 방법

구분		빈도(%)
선행되어야 할 사항	학생의 이해와 인식전환	26(26.3)
	교사의 이해와 인식전환	61(61.6)
	학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5(5.1)
	교육청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7(7.1)
연수 방법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연수	5(5.1)
	외국인과 함께하는 다문화 이해 연수	31(31.3)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사 직무 연수	33(33.3)
	수업사례를 통한 연수	30(30.3)
합 계		99(100.0)

과에서 중점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기술·가정 교과가 6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과, 도덕과, 국어과, 외국어과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과 교사들은 기술·가정 교과와 다문화교육 수업의 연관성을 깊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교과에서 효과적인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가정과 교사들과 관련 기관의 노력이 요구된다. 반면,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한 정진홍(2008)의 연구에서는 다문화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교과로 국어과와 사회과가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교육을 실시할 때 활용하기에 적당한 자료에 대한 결과 시청각 자료가 64.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시각매체, 실물자료, 인터넷 매체 순이다.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이은주(2010)의 연구에서도 시청각 자료, 시각매체, 실물자료, 인터넷 매체 순으로 본 연구결과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다문화교육을 실시 할 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결과 교사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전환'이 가장 높았으며, '학생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전환', '교육청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학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문화교육을 실시 할 때 가정과 교사들은, 교사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전환을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본 조사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가정과 교사들의 인식은 아직까지 유보적인 것으로 보인다. 다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전환을 위하여 본인의 노력과 다양한 자료, 연수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다.

다문화교육의 연수 방법에 대한 결과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사 직무 연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외국인과 함께하는 다문화 이해 연수', '다문화 수업이 이루어지는 수업사례를 통한 연수' 등의 순이다. 즉 가정과 교사들은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연수보다 교사 직무 연수, 외국인과 함께하는 연수, 수업사례를 통한 연수와 같은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연수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가 반영된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겠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정과 교사의 다문화가족 인식과 다문화교육 요구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가정과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한 99부를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과 교사의 다문화가족 접촉 경험과 다문화교육 관련 수업 및 교사연수 유무 실태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다문화가족 접촉 경험이 있는 교사보다 없는 교사가 약간 많았다. 재학시절 다문화교육 관련 수업을 수강하였거나, 다문화교육 관련 교사연수를 받은 경험은 드물게 나타났다. 사실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이후부터 본격화된 것이며, 그 이전까지 우리는 '단일민족'을 우리의 소중한 유산으로 여겼다. 따라서 교사양성과정 및 교사의 재교육에서 다문화교육에 관한 체계적 접근의 부재는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실태를 통해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사연수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둘째,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가정과 교사들은 다인종의 존중, 다문화의 인정, 다문화에 대한 신념, 다문화 지식 수용 태도는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살고 있음을 인지하는 현실 인식은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은 편이었다. 또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친밀감이나 그들과의 소통, 그들에 대한 관심은 유보적인 결과를 보였다. 사회적인 차원에서 다문화가족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개인적인 그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다문화사회에서의 교사들의 인식 재고를 위하여 교사 교육과 다양한 연수가 시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다문화교육 목표에 대한 관점을 분석한 결과, 교사들은 배려중심 관점을 가장 많이 보이고 있었다. 즉 다문화교육은 다문화사회의 건설을 위해 정의와 자유에 기반을 두고, 상호 이해와 배려를 강조해야 한다는 관점에 강한 동의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인간관계 강조 관점, 사회적 행동 강조 관점, 동화주의 관점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동화주의 관점을 많이 보이고, 서울지역 교사들이 경인지역 교사들보다 인간관계 강조 관점을 더 많이 보이며 연령과 근무지역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동화주의 관점이 교사들에게 가장 적게 나타났지만, 동화주의 관점과 인간관계 강조 관점이 기존 사회의 현상 유지를 의미하고, 사회적 행동 강조 관점과 배려 중심 관점이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교육을 실천 한다고 보았을 때 이러한 동화주의 관점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가정교과의 다문화교육 중점 내용으로는 더불어 사는 다문화사회를 다루는 내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밖에 중점 내용으로는 다문화가족 친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내용, 다른 나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 모든 민족의 평등 가치에 대한 내용 순이었다. 즉, 가정교과의 다문화교육 내용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은 협력, 다양성, 문화, 평등의

순이었다. 가정교과에서 다문화교육을 실시 할 때 지향해야 할 목표에 대한 결과는 배려 중심 관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인간관계 강조 관점, 동화주의 관점, 사회적 행동 강조 관점 순으로, 사회적 행동 강조 관점이 동화주의 관점보다도 약하게 나타났다.

다섯째, 다문화교육 실시 방법은 모든 교과의 전 영역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교과에서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제시될 때 실시, 주제 중심으로 특정 시기를 선택해서 실시, 특정 교과에서 실시 순이었다. 이는 다문화교육이 특정 교과의 교육이 아닌 통합 교육이 되어야하며, 이를 위해서 다양하고 효과적인 수업 방법의 개발과 보급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또 다문화교육이 특정 교과에서 실시된다면 어떤 교과에서 중점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살펴본 결과, 기술·가정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사회과, 도덕과, 국어과, 외국어과 순이었다. 이를 통해 가정과 교사들은 기술·가정 교과와 다문화교육 수업의 연관성을 깊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활용 자료에 대해 시청각 자료를 가장 선호하였고, 다문화교육을 실시 할 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교사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전환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연수 방법으로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사 직무 연수와 외국인과 함께하는 다문화 이해 연수를 선호했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볼 때, 사범대학을 포함하여 교사 양성 기관에서의 다문화교육 관련 수업의 개설과 현직 교사의 재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되며, 다문화사회에 대한 가정과 교사들의 인식 재고와 동화주의 관점의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자료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효율적인 다문화교육 실시를 위하여 효과적인 수업 방법의 개발과 보급이 이루어져야겠다. 다문화교육 교사 연수는 많은 가정과 교사들이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연수보다 외국인과 직접적으로 만나거나, 사례를 통해 보고, 느낄 수 있는 연수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관련기관이 주관되어 연수 프로그램을 신설, 확충해야겠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07).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해설서.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2009).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계획. 교육과학기술부.
- 김선미·김영순(2008). 다문화교육의 이해. 한국문화사.
- 김현주·김경숙(2008). 예비보육교사와 현직보육교사의 다문화교육에 관한 인식. *아동교육*, 17(4), 117-128.
- 김홍운·김두정(2008). 다문화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교육연구논총*, 29(2), 41-63.
- 노동부(2004). 2004년 노동력 수요 동향 조사. 노동부.
- 농림수산식품부(2009). 2007~2009 지역별·출산국별 다문화가정 현황 분석. 농림수산식품부.
- 모경환·황혜원(2007). 중등 교사들의 다문화적 인식에 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39(3), 79-100.
- 문화저널21(2009.12.31). 한국의 다문화교육, 어디까지 왔나. 문화저널
- 박성현·관한영(2009). 다문화교육정책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정책의 방향모색. *시민교육연구*, 41(2), 97-127.
- 박미경·이승연(2008). 유아교사가 인식하는 다문화교육의 개념, 실천 형태 및 실천의 어려움. *유아교육연구*, 28(2), 5-27.
- 보건복지가족부(2009).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부(2010).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 서범석(2009). 한국의 선진화를 위한 학교다문화교육정책의 기본방향. *초등교육연구*, 22(4), 1-26.
- 오경석·김희정·이선옥·박홍순·정진현·정혜실·양영자·오현선·류성환·이희수·강희복(2007).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한울.
- 오연경(2008). 다문화가족 상담을 위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역할.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 유정남(2009). 공립유치원 다문화가정 유아의 교육실태 및 지원에 관한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 이민경(2008). 한국사회의 다문화교육 방향성 고찰. *교육사회학연구*, 18(22), 83-104.
- 이진아(2008). 다문화교육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인식과 태도. 순천대 석사학위논문.
- 이은주(2010). 경인지역 초등학교 교사의 다문화교육에 관한 인식과 요구분석. 경인교대 석사학위논문.
- 이춘자(2008). 다문화교육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인식 분석. *한국보육학회지*, 8(3), 19-47.
- 인구보건복지협회(2009). 2009 세계인구현황보고서. 인구보건복지협회.
- 전경숙(2008). 경기도 지역의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생활실태 조사. *청소년상담연구*, 15(1), 167-185.
- 정진홍(2008).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조사 연구. 대구대 석사학위논문.
- 최현미·이혜경·신은주·최승희·김연희·송성실(2008). 다문화 가족 복지론. 양서원.
- 파이낸셜뉴스(2006.6.21). 저출산 고령화가 성장위협.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9).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포커스신문사(2010.4.6). 한국 인구 2018년 5000만 넘는다.
- Banks, J. A.(1994). *An introduction to muticultural education*. Boston: Allyn and Nieto, S.(1992). *Affirming diversity: the sociopolitical context of Multicultural education*. New York: Longman.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과 교사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과 바람직한 다문화교육을 위한 요구는 어떠한지 분석하여 효율적인 다문화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가정과 교사를 대상으로 수집한 99부의 설문조사 자료를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과 교사의 다문화가족 접촉 경험과 다문화교육 관련 수업 및 교사연수 유무 실태를 알아본 결과 다문화가족 접촉 경험이 있는 교사보다 없는 교사가 약간 많았다. 대학교 재학시절 다문화교육 관련 수업을 수강하였거나 다문화교육 관련 교사 연수를 받은 경험은 드물게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가정과 교사들은 다인종의 존중, 다문화의 인정, 다문화에 대한 신념, 다문화 지식 수용 태도는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친밀감과 관심, 그들과의 소통에서는 유보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셋째, 다문화교육의 목표에 대한 관점을 분석한 결과, 다문화사회의 건설을 위해 상호 이해와 배려를 강조해야 한다는 배려중심 관점을 가장 많이 보이고 있었다. 다음으로 인간관계 강조 관점, 사회적 행동 강조 관점, 동화주의 관점 순이었다.

넷째, 가정교과에서 다문화교육을 실시 할 때 가정과 교사는 더불어 사는 다문화사회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가정교과에서 지향해야 할 목표는 배려 중심 관점을 가장 선호했다.

다섯째, 다문화교육은 모든 교과의 전 영역에서 통합적으로 실시되어야 하지만, 특정 교과에서 실시된다면 기술가정과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여겼다. 다문화교육을 실시 할 때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교사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전환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활용 자료는 시청각 자료, 연수 방법으로는 교사 직무 연수와 외국인과 함께하는 다문화 이해 연수를 선호하였다.

■ 논문접수일자: 2010년 8월 11일, 논문심사일자: 2010년 8월 20일, 게재확정일자: 2010년 9월 10일